금주 법구

악한 일 멀리하고 힘 따라 선행하며
내 마음 밝힌다면 모든 부처 미소짓네.

-증일아함경-

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8월 29일 수요일 (주간) 제 332 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봉은사 24시간 법당 개방

요즘 웬만한 사찰 치고 야간에 문을 걸어 잠그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야밤에 숨어들어 성보를 노리는 문화재 도난범들이 늘고 있어 도난 위험이 따르는데다, 훼불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보통 저녁 9시만 되면 사찰 출입구를 봉쇄하거나, 이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는 법당 문에 커다란 자물쇠를 채운다. 특히 도심 사찰의 경우는 더더욱 불가피한 측면이 많다.

대부분의 불자들은 사찰이 저녁 9시에 문을 닫는다고 해서 크게 불편해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깊은 밤 고즈넉한 사찰 법당에서 부처님과 마주앉고 싶어하는 불자들에게는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다. 적어도 야간에 사찰에 가길 원하는 불자들은 규제를 당하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최근 서울 강남의 봉은사(주지 원혜)가 야간에도 법당을 개방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불자들로부터 반가움을 사고 있다.

경내 법당 중 하나인 보우당을 '참회원(懺悔院)'으로 이름짓고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늦어도 10월중으로는 참회원을 개원한다고 하니 평상시에도 24시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법당이 생기는 셈이다.

봉은사는 참회원의 운영 기본 원칙도 세워놓았다. 모든 불자에게 24시간 개방하되 기본적으로 묵언을 원칙으로 하며, 참회와 기도의 공간으로만 활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사중도량의 경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회원 외의 이동은 금할 방침이다.

참회원이 개설되면 봉은사로서는 사찰 경비에 두 세배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게 되고, 또 이곳을 이용하는 불자들의 편의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은사가 참회원을 개설하려는 까닭은 단 한 가지, 불자들의 신행생활이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봉은사는 12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사찰이자, 도시민들이 언제나 가까이 찾을 수 있는 도심 포교당이다. 그런 봉은사가 시민과 불자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속편한' 규제 보다는 '수고스러운' 개방을 택했다.

전통도 소중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미래다. 작은 부분이지만 불자들을 위한 배려에서 봉은사와 불교의 미래가 희망으로 다가온다.

한명우(취재 1부 기자)

장 군 죽 비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 悉有佛性). 만물에 불성이 깃들어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범불교 환경단체 출범. (2면)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의 고통을 알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도 있다. 경희대 '선재회'의 진료 자비행. (5면)

◇이 땅의 아들은 모두가 내 아들. 충북 예비역 불자 모임 '법성회' 논산훈련소 등 충청지역 군법당 지원으로 자비 실천. (6면)

◇불교 종립 중·고교 교과서 환골탈태. 다양한 내용과 생생한 컬러 사진으로 신세대 불심에 눈높이 맞추기. (23면)

전통사찰 보존·지원 강화

조계종-3당 불자의원 '전사법 개정안' 9월 국회 상정

'사찰 보호구역' 설정 대통령령으로
신·증·개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

조계종은 전통사찰의 실질적 보존과 발전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제도적 보완 등 법률적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을 추진한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정대)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무상 양여, 대부, 위탁 △조세감면 △관람료 징수 △법인·단체 및 개인의 금전 및 기타 재산 기부·기탁 △사찰 재산권 보호를 골자로 하는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이 9월 개최되는 정기국회에 3당 불자의원의 공동발의로 상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사찰 주변의 수행환경 보존을 위해 문화부장관이 지자체 단체장 및 개발업자의 난개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명문화 하고, 문화관광부에 전통사찰자문위원회 설치, '사찰보호구역' 설정도 지자체 조례에서 대통령령으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또 민원 간소화를 위해 전통사찰 신·증·개축 허가시 적용되는 자연공원법, 도시계획법, 농지법, 초지법 등 총 18개 법률에 대한 허가의제 조항을 마련하여 인허가 창구를 문화부장관으로 단일화 했다.

전통사찰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실질적으로 보장토록 하기 위해 문화재가 없는 사찰이라 할 경우라도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전통사찰 주지의 재산횡령과 유용, 은닉 등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 주지는 물론 전주지 및 전전 주지도 사찰재산의 취득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 스님은 "그 동안 제기된 불교계 요구사항이 이번 개정으로 체계적·종합적으로 해결되고, 전통사찰의 내실 있는 관리운영 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전통사찰이 자연친화적인 청정도량으로서 그 원형을 보존하면서 후손에게 계승될 수 있길 희망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은 21일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 등 3당 불자의원 15명을 초청,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번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풀고 문화재보호 및 보존, 불교발전에 장기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인 만큼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3당 불자의원들은 "3당 불자회가 불자 율사의원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한글대장경 318권 완간

37년 불사… 9월 5일 회향법회

37년에 걸려 모두 318권으로 완간된 한글대장경 완간 회향법회가 9월 5일 오후 1시30분 장충체육관에서 성대하게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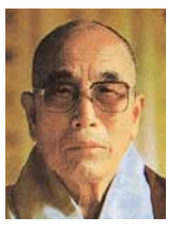
예경식, 회향법회, 축하공연 등 3부로 나뉘어 3시간동안 진행될 회향법회는, 초창기부터 역경사업에 동참해온 석주·서암·관응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1만여명이 참석하는 대법회로 치러질 예정이다. 회향법회는 한글대장경을 부처님께 올리는 고불의식을 비롯하여 법문, 각계 인사의 축사와 격려사 그리고 역경에 공이 큰 사람들에 대한 표창, 축가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이번 행사를 위해 동국역경원장인 월운 스님이 직접 쓴 글에 정부기(중앙대 작곡가) 교수가 곡을 붙여 한글대장경의 완간을 기념하는 한글대장경찬가 '보라, 깨달으라'를 1천여명으로 구성된 사암연합합창단이 부르게 된다.

이에 앞서 식전행사인 예경식은 부처님을 청하고 예경을 올리는 의식에 이어 불교 전통의 신중작법과 육법공양·축원 등으로 진행된다.

한글대장경 완간 회향 법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일면(봉선사 주지) 스님은 "한글대장경 완간은 한국불교사의 한 획을 긋는 커다란 업적으로 한국불교가 한 차원 높이 웅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이번 회향법회는 한글대장경 보급과 읽기사업을 알리는 시발점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통도사 방장에 월하 스님 추천

산중총회서 만장일치



통도사는 20일 설법전에서 재적인원 253명 중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중총회를 열고 공석중인 방장에 월하 스님 추천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로써 종법에 위배되는 전임방장의 주지 임명을 놓고 갈등을 겪어오던 통도사의 내분이 일단락 됐다. ☞관련기사 3면

이날 산중총회로 영축총림 대중의 뜻은 결집되었으나 '총림의 방장은 중앙종회에서 추대한다'는 종헌에 따라 9월 4일 열리는 임시 중앙종회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통도사 방장으로 추천된 월하 스님은 21일 98년 종단사태와 관련 참회의 뜻을 밝히고, 징계자 사면을 통한 종단화합을 당부했다. 월하 스님은 '종도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98년 종단문제는 유례없는 혼란, 사회적 우려와 지탄이 야기되는 참담한 사태 이었다"며 "그 모든 책임은 노납에게 있는 만큼 종단문제와 관련한 일체의 소송은 취하했으며, 노납의 문도와 총림대중도 노납의 심중을 헤아려 참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산사의 고추 말리기

불볕 더위가 물러가고 청량한 가을이 왔음을 알리는 처서(處暑)날인 23일 남양주 봉영사에서는 고추말리기가 한창이다. 점점 높아가는 파란 하늘아래 빠알간 고추색깔이 더욱 선명하고 스님들의 넉넉한 미소가 한결 싱그럽다. 사진=고영배 기자

"비폭력 문화·화합승가 정착"

정대 스님 23일 담화문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은 23일, '폭력윤회'를 끊는 일주일간의 108배 참회정진 회향에 맞춰 비폭력, 평화를 서원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대 스님은 담화문에서 "우리 불교가 40여 년간의 불교정화 및 개혁운동 과정에서 불행하게도 행해서는 안될 폭력적 방법을 사용했다"고 전제하고 "이해와 관용의 자비심으로 평등한 가운데 서로를 인정하는 조화와 화합의 화신이 되어 먼저 자신의 평화를 이룩하고 나아가 사회와 국가의 평화를 이끌어 내는 실천자가 되어지도록 부단한 정진과 노력을 다시 한번 서원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조계종 총무원과 함께 '비폭력 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참회정진' 회향식을 가진 17개 불교단체는 9월 1일부터 일주일간 총무원 청사 앞에서 중앙종회에 '(가)교역자 윤리위원회' 제정 등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는 108참회정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종단 폭력행위자 산문출송"

조계종 종회 호법위

앞으로 종단폭력 행위자는 해당산문이나 문중에서 산문출송 조치됨은 물론 교계신문에 공고하는 것이 의무화돼 타 사찰에도 일체 방부를 들일 수 없게 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위원장 정념)는 23일 제7차 회의를 열어 △징계내용 세분화 △징계 형량 강화 △가중처벌 조항 신설 △종단공직 취임 제한 △징계자 정기감찰 △징계자 봉사내지 참회 등의 내용이 들어있는 승려법 및 관계종법의 조항 개정 및 신설을 골자로 하는 종단 내 폭력행위자에 대한 근절방안을 채택하고 제 151회 임시중앙종회 본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또 호법부는 폭력 행위자를 입건 후 2개월 이내 처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처리하지 않을 경우 호법부장에 대한 불신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입건되어 조사 및 심판중인 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호법부나 호계원에 청탁하거나 비호할 경우 징계에 회부토록 했다. 김원우 기자